

대한민국 식량 공급 · 식품 안전을 지키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재단 7차년도 연보

2016년 1월 - 12월



[목차]

· 이사장 인사말	02
· 임원 및 직원 명단	04
· 7차 년도 사업내용	
- 이사회 개최	06
- 연구사업	07
- 학술회의	07
- 저술 출판사업	09
-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진행사항	10
· 7차 년도 재무보고 (2016년 12월 31일 기준)	12
· 2017년도 사업계획	13
· 2017년도 예산	14
· 이사장 칼럼	15
식품관련학회의 단합된 힘 / 복지국가의 조건 / GMO의 과학적 진실	
농지 훼손은 자손만대에 대한 범죄 / 음식에 대한 편견과 오만	
제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	
· 도서출판 식안연 출판현황	20

이사장 인사말



2016년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한해였습니다. 대통령의 실수가 일부 국민들에게 쌓였던 사회에 대한 불만이 수면위로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전화위복이 될지 혼돈과 분란으로 그동안 쌓아올린 국격과 경제가 만신창이 될지 알 수 없는 위기상황입니다.

사실 지난해 초에는 유전자변형식품(GMO) 반대운동단체들의 집요한 표시제 확대 주장으로 제2의 광우병사태가 발생할 것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이것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재단은 이를 막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GMO 수입업체 명단 공개나 표시제 확대의 부당성과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계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학계와 협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식품관련학회 9개 단체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GMO 정치이슈화를 우

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농업생명공학 관련 5개 학회가 농업생명공학 연구개발 위촉 우려에 대한 과학계 모임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본 재단은 한국식물생명공학회 정기총회에서 특별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관련 학회들은 지난 12월 14일 충남대에서 “GMO 전문가에게 묻다”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앞으로 이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기로 하여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과학계의 GMO 홍보노력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단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6년도 정책자문 집필위원회 연구사업으로 국제과학아카데미연합(IAP) 연구과제 “식량영양안보와 농업”의 1차년도 보고서 ‘한국의 현황과 전망’ 집필에 협력했습니다. 금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한국의 식량영양안보 대외협력 현황과 과제’를 집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재단 연구과제로 수행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연구’와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할 신 육종기술 고찰’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각각 1회의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연구결과 보고서는 금년에 책자로 출판 될 예정입니다.

재단의 출판사업은 지난해 식량안보시리즈 제5권 ‘식량양비 줄이기’와 제6권 ‘목소리와 견해: 왜 생명공학인가?’를 출판했으며 ‘과학이 보인다’ I, II 권을 합본하여 증보개정판을 냈습니다. 그동안 영문화 작업을 했던 ‘콩 스토리텔링’ 국영문판은 금년에 출판 될 예정입니다.

재단은 금년도 연구과제로 ‘세계 곡물시장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를 채택하고 연구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출판 활동을 통해 금년도 재단은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재단의 사업을 후원하시고 헌신적으로 협력하시는 이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끊임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이 나라에 구태를 벗어난 새로운 현정질서가 마련되어 모든 국민이 새 희망과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철호

[한국식물생명공학회 특별공로상 수상]

재단은 2016년 6월 9일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식물생명공학회 정기총회에서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재단은 공로패와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특별공로상 : (재)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귀 재단은 국가 식량안보 구축과 식물생명공학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홍보하여 국가식물생명산업 활성화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6년 6월 9일 (사)한국식물생명공학회장 박상수

[식품관련학회 9개 단체 ‘일부 국회의원들의 GMO 정치이슈화를 우려한다’ 성명서 발표]

중앙일보

2016년 08월 09일
04면 (정치)

일부 국회의원들의 GMO 정치이슈화를 우려한다.

성명서

유전자변형농작물(GMO)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이용되고 있어 그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내세워 GM식품 표시제 확대를 입법화 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국익에 반하는 행위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일부 GMO 반대 단체들의 비과학적인 괴담에 현혹된 일부 정치인들의 행동에 대해 식품관련학회 및 연구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학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바이다.

- 1** **작금의 GM식품 표시제 확대 요구**는 국민의 생명공학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켜 새로운 농업기술의 이용과 연구를 저해하고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 2** **외래 DNA나 단백질이 제거되어 검증이 불가능한 일부 GM식품(식용유, 간장 등에 표시 의무화할 경우 관리당국의 신뢰가 떨어지고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게 된다.**
- 3** **주변국에서 하지 않는 GM식품의 표시제 확대**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식품시장의 해외잠식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4** **식품괴담으로 시작된 GM식품 표시제 확대**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016년 8월 9일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한국포장학회	한국식품영양학회	한국식생활문화학회
한국식품기술사협회	미래식량자원포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1. 임원 및 직원 명단 ❖❖

【고 문】



권태완 인제대학교 명예교수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식품과학 박사
KIST 식량과학연구소장, 부원장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초대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콩세계과학관 건립추진위원장



이현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네소타대학교 화학공학 박사
미네소타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전) 대통령실 과학기술특별보좌관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
(전) 제4, 5, 6대 경기도의회의원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특보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이사장】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덴마크왕립수의학과대학 식품학 박사
미국 MIT공과대학 연구원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미국식품공학회(IFIT) Fellow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컨설턴트

【이 사】



김철하 CJ제일제당(주) 부회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발효화학 석사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학사
CJ제일제당 대표이사
CJ제일제당 총괄 부사장
대상 바이오사업총괄 중앙연구소장 전무
(재)식품안전상생협회 이사장



문성환 (주)삼양사 사장

헬싱키대학교대학원 경영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삼양제넥스 대표이사 사장
휴비스 대표이사 사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경영협의회 회장
삼양사 경영기획실장 부사장
삼양사 경영기획실장 상무



명형섭 대상(주) 사장

고려대학교 농화학과 학사
경희고등학교
대상 대표이사 사장
대상 식품사업총괄 전무
대상 식품사업총괄 상무
대상 전문당사업본부 서울공장장
미원 기술연구소



박관희 대선제분(주) 회장

펜실베이니아대학교대학원 석사
서울상공회의소 제20대 대의원선출
경북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대선제분 대표이사 회장
(사)한국쌀기공식품협회 회장

【이 사】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 석사
조선대학교 법학 학사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사
한식재단 이사
동원그룹 부회장

【재단 사무국】



김미경 사무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



박준 (주)농심 사장

중앙대학교 사회사업학과 학사
농심 대표이사 사장
농심 국제사업총괄 사장
농심 국제담당 이사
농심 미국지사 사장

【재단 연구부】



이숙종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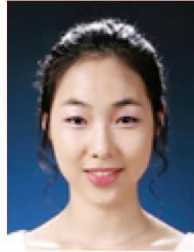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이학박사
고려대학교 부설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연구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선임연구원

【감 사】



박현진 고려대학교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사
고려대 식품공학과 석사
미국 클렘슨대학교 포장공학과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정혜정

고려대학교 신소재화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이학박사(과정수료)
고려대학교 부설 건강기능식품연구센터 연구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연구원



이광호 고려대학교 교수

미국 멧거스대학교 식품과학과 박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저가회추진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출판부】



김유원 사장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도서출판 유림문화사 설립
한국실업검정교과서 이사
미국도서관협회총회 한국대표
한국청소년도서협의회 이사
(現)도서출판 유림문화사 대표

2. 7차년도 사업내용 ■ ■ ■ ■

2-1. 이사회 개최

(1) 1차 정기이사회



- * 일 시 : 2016년 4월 06일 오전 7:30
- * 장 소 : 조선포텔, The Ninth Gate Grille
- * 참 석 자 : 이철호, 김철하, 명형섭(이정성상무 대리출석), 문성환, 박관희, 박 준(박형록전무 대리출석), 박현진
- * 회의내용 : 2015년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 2016년 사업계획 심의, 2016년 운영예산 심의, 동원그룹 박인구 부회장 재단 신임이사로 결정

(2) 임시이사회



- * 일 시 : 2016년 6월 17일 오전 7:30
- * 장 소 : 조선포텔, The Ninth Gate Grille
- * 참 석 자 : 이철호, 김철하(김민규센터장 대리출석), 명형섭(이정성상무 대리출석), 문성환(양철호팀장 대리출석), 박관희, 박 준(박형록 전무 대리출석)
- * 회의내용 : 한국식품생명공학회 특별공로상 수상 보고, 문헌팔 감사 사임 및 신임 감사 선출(이광호 고려대 교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운영식 부회장 참석

(3) 2차 정기이사회



- * 일 시 : 2016년 11월 02일 오전 7:30
- * 장 소 : 조선포텔, The Ninth Gate Grille
- * 참 석 자 : 이철호, 김철하, 문성환, 명형섭, 박관희, 박인구, 박 준(김경조 부사장 대리출석), 이광호, 박현진
- * 회의내용 : 2016년 업무보고 및 가결산보고, 2017년 사업계획 심의, 2017년 운영예산 심의, 김철하, 문성환, 명형섭, 박 준 이사 연임 동의로 가결

2-2. 연구사업

(1) 2016년도 재단 연구과제

가. 지정과제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연구

- * 연구자 : 총괄책임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
 - 제1세부과제: 한·일 식량정책 비교(김태곤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2세부과제: 한·중 식량정책 비교(고재모 교수, 협성대학교)
- * 연구기간 : 2016.01-2016.12
- * 연구비 : 2,000만원
- * 진행사항 : 11월 14일 제18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연구'

나. 공모과제 - 세계 식량위기를 해결 할 식량생산 신기술 연구

- * 과제명 : 식량생산제고를 위한 육종기술 고찰
- * 연구자 : 한지학 본부장(㈜농우바이오 R&D 본부)
 - 연구원: 정 민, 김미진, 신수창(㈜농우바이오 R&D 본부)
- * 연구기간 : 2016.01-2016.12
- * 연구비 : 2,000만원
- * 진행사항 : 10월 21일 제17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 - '식량안보를 위한 식물생명공학 심포지엄:GMO와 신육종기술의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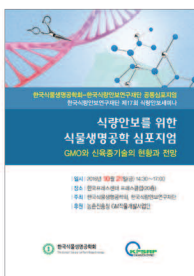
(2) 외부수탁과제

가. 과학기술한림원 'IAP 식량영양안보와 농업-한국의 전망' 정책자문보고서 집필위원회

- * 위원장 : 이철호 이사장, 부위원장: 김유항 교수(인하대)
- * 위원 : 박현진 교수(재단 감사), 박승우 교수(서울대), 정효지 교수(서울대), 이숙중 박사(재단 연구원)
- * 연구기간: 2016년 7월~12월
- * 연구비 : 회의비, 집필자 원고료
- 'IAP 식량영양안보와 농업-한국의 전망' 1차년도 보고서 발행 (2017년 1월 중)

2-3. 학술회의

(1) 제17회 식량안보세미나 - '식량안보를 위한 식물생명공학 심포지엄: GMO와 신육종기술의 현황과 전망'



- * 일시 : 2016년 10월 21일(금) 14:30~17:00
-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 * 주최 : 한국식물생명공학회,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후원 :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
- * 발표자 : 유장렬 박사(한국생명공학연구원), 최성화 교수(서울대), 한지학 박사(농우바이오)
- * 토론자 : 이철호, 조용구, 조현석, 이윤동, 김정년
- * 참석인원 : 80여 명, 자료집 200부 제작 배포



(2) 제18회 식량안보세미나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연구



- * 일시 : 2016년 11월 14일(월) 14:30~17:00
-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20층)
-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발표자 : 김태곤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고재모 교수(협성대학교)
- * 토론자 :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곽상수, 오정규, 전한영, 최기수
- * 참석인원 : 60여 명, 자료집 200부 제작 배포



(3) 간담회

a. 제10차 식량안보간담회

- * 주제 : 2016년도 연구과제 수행 논의
- * 일시 : 2016. 1. 13. 11:00~13:00
- * 발표 : 지정연구과제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연구”에 관한 토의
공모연구과제 “식량생산 신기술 연구”에 관한 토의
- * 참석자 : 이철호, 김태곤, 고재모, 한지학, 문헌팔, 박현진, 곽상수, 황한준, 이숙중, 김미경
- *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412호

b. 제11차 식량안보간담회

- * 주제 : 공모연구과제 “식량생산 신기술 연구”에 대한 진행 경과 발표와 토의
- * 일시 : 2016. 4. 29. 11:00~13:00
- * 발표 : 한지학 박사 “식량생산 신기술 연구”에 대한 진행 경과 발표와 토의
- * 참석자 : 이철호, 고재모, 한지학, 신정섭, 이광호, 이숙중, 김미경
- *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412호

c. 제12차 식량안보간담회

- * 주제 : 지정연구과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연구” 중 “한·일 식량정책 비교 연구”에 대한 진행 경과 발표와 토의
- * 일시 : 2016. 5. 27. 11:00~13:00
- * 발표 : 김태곤 박사 “한·일 식량정책 비교 연구”에 대한 진행 경과 발표
- * 참석자 : 이철호, 김태곤, 김유향, 박원훈, 고재모, 박상수, 안병일, 박현진, 이광호, 이숙중, 김미경
- *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412호

d. 제13차 식량안보간담회

- * 주제 : 지정연구과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연구” 중 “한·중 식량정책 비교 연구”에 대한 진행 경과 발표와 토의
- * 일시 : 2016. 6. 24. 11:00~13:00
- * 발표 : 고재모 교수 “한·중 식량정책 비교 연구”에 대한 진행 경과 발표
- * 참석자 : 이철호, 김태곤, 고재모, 박상수, 안병일, 박현진, 이광호, 황한준, 김미경
- *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412호

2-4. 저술 출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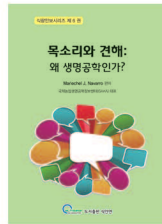
(1) 단행본 (도서출판 식안연)

1) 식량낭비 줄이기 (식량안보 시리즈 제5권)



- 저자 : 채희정, 이숙중, 이철호
- 출판일 : 2016년 4월 06일
- 정가 : 12,000원
- 출판부수 : 초판 1,000권, 재판 500부

2) 목소리와 견해: 왜 생명공학인가? (식량안보 시리즈 제6권)



- 저자 : Navarro, M.J. (Ed.), 2015, 원저
- 크롭라이프코리아 번역
- 출판일 : 2016년 6월 30일
- 정가 : 12,000원
- 출판부수 : 초판 1,500부

3) 과학이 보인다 (증보개정판)



- 저자 : 양재승
- 출판일 : 2016년 9월 25일
- 정가 : 17,000원
- 출판부수 : 초판 500부

4) 식물 생명공학 101 - 당신의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 저자 : 크롭라이프 (CropLife International)출판
- 출판일 : 2016년 12월 9일
- 정가 : 판매품
- 출판부수 : 3,000부

(2) 인터넷 월간 뉴스레터 발간

- 1) 뉴스레터 67호(2016년 1월) ~ 78호(2016년 12월) 발간, 홈페이지 게시
- 2) E-mail 메일링 리스트 2,700여 명에게 발송

(3) 홈페이지 관리운영

- 1) 홈페이지 업로드 상황 (2016년 1월~12월)
- 1) 뉴스기사 333건, 추천도서 10건, 보고서 33건, 논문 2건, 발표/강의 자료 4건, 세미나 자료집 파일 4건, 동영상 6건, 갤러리 27건 등

2-5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 진행사항

(1) 초청강연 및 토론발표

- 6/09 한국식품생명공학회 특별공로상 수상
 - 수상기념강연 '재단의 설립 배경과 연혁 소개' 및 '생명공학 수용을 통한 한국 농업혁신 정책방안' 발표
- 7/07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한살림연합 주최 GMO 심포지엄 주제 강연
 - 'GM기술 국산화 현황' 발표
- 7/18 식품관련학회 성명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GMO 정치이슈화를 우려한다" 발표
 - 식품음료신문 7/18, 중앙일보 8/09

(2) TV 출연 및 라디오 인터뷰

- 7/11 전주 KBS 라디오 '터놓고 말합시다' -GMO의 안전성과 표시제도- 공개토론
- 8/14 KBS1 라디오 '싱싱농수산' -지속 가능한 농업, 어떻게 하면 우리농업을지속 가능하게 할까?- 대담
- 9/24 전주 JTV '시사진단' -GMO 진실은 무엇인가?- 출연
- 10/06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정면승부' -쌓여가는 쌀... 농지 축소로 해결 될까? 인터뷰
- 10/20 전주KBS 라디오 '패트럴 전복' - 식량안보 문제 인터뷰
- 11/05 대구MBC 시사톡톡 - 우리밥상을 점령한 GMO 과연 안전한가? - 출연



전주 JTV '시사진단'



대구MBC 시사톡톡

(3) 신문 잡지 기고문

- 1/11 한식 세계화의 청신호 - 식품외식경제
- 1/12 식품외식산업 정치적 역량 키우는 한해 - 식품외식경제
- 1/20 식품 업계 대변할 정치 역량 확보를 - 식품음료신문
- 1/21 20대 총선에 거는 기대 - CNB저널
- 2/15 식품관련학회의 단합된 힘 - 식품외식경제, 복지국가의 조건 - CNB저널
- 3/02 GMO 표시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더 그린' 웹진 3월호
- 3/10 국회의원 후보들의 서약 - CNB저널
- 3/14 요리별 전용 쌀 품종이 사용된다 - 식품외식경제
- 4/14 식품사에서 보는 한국고대사 - 식품외식경제
- 4/14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사회 - CNB저널
- 5/04 방송과 식품에 대한 편견 - 글로벌이코노믹 497호
- 5/16 올바른 역사인식이 소중한 이유 - CNB저널
- 5/16 식품괴담으로 흔들리고 있는 한국사회 - 식품외식경제
- 5/20 GMO 수입업체 정보공개할 수 없는 이유 - 식품음료신문
- 6/07 “독 있을지 몰라요”가 가져올 재앙 - CNB저널
- 6/10 마녀사냥 - 식품외식경제
- 6/28 식품괴담, 시간이 해결해 준다 - CNB저널
- 7/07 GMO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 매일경제
- 7/08 GMO 표시 확대를 할 수 없는 이유 - 식품외식경제
- 7/18 GMO의 과학적 진실 - 식품음료신문, GMO에 대한 보도 자세 - CNB저널
- 8/08 미국의 GM식품 표시법 - 식품외식경제
- 8/22 노벨상 수상자 107명이 GMO 반대를 우려하는 이유 - 중앙일보
- 8/23 지속가능한 농업의 선택 - CNB저널
- 9/05 우수관리농산물(GAP)에 대한 이해 - 식품외식경제
- 9/12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의식 - CNB저널
- 10/12 GMO에 대한 TV 공개토론-식품외식경제,
- 10/12 농지 훼손은 자손만대에 대한 범죄 - CNB저널
- 10/27 GMO식품 안전성, 과학계 목소리 들어야 - 한국경제
- 11/04 식품에 대한 기우(杞憂) - CNB저널
- 11/07 GMO 안전성은 과학계의 의견을 듣자 - 식품외식경제
- 12/05 GMO TV토론 제2라운드 - 식품외식경제
- 12/05 음식에 대한 편견과 오만 - CNB저널

3. 7차년도 재무보고 (2016.01.01 ~ 2016.12.31) ■■■

(단위: 원)

수입			지출		
항목	내용	금액	항목	금액	
후원금	대상	20,000,000	인건비(사무간사)	22,112,670	
	CJ제일제당	20,000,000	인건비(연구원)	11,472,000	
	삼양사	20,000,000	복리후생비	1,100,000	
	농심	20,000,000	회의비(자문료)	5,273,600	
	동원그룹	20,000,000	통신비	230,280	
	특별상 상금 (한국식물생명공학회)	3,000,000	세금과 공과금	1,439,980	
	소 계	103,000,000	보험료(4대보험)	4,051,750	
이자수익	이자&세금환급	2,040,938	유인물비	7,227,260	
도서판매 수익	식안연 발간책자	30,409,849	홍보비(홈페이지&광고)	10,010,000	
세미나 지원	한국식품산업협회	6,000,000	운영비(세무사)	3,750,000	
기타	한림원의 목소리 발송비용 등	5,100,000	운영비(DM발송)	5,944,340	
			연구용역비	26,472,000	
소 계		43,550,787	소 계	112,182,698	
합 계		146,550,787	출판사업	인건비	900,000
전년이월		81,330,944		원고료	5,487,430
총 계		227,881,731		인쇄비	24,941,400
				배본료	5,595,590
			소 계	36,924,420	
			총 계	149,107,118	

수입	146,550,787
지출	149,107,118
전년이월금	81,330,944
출연금	100,000,000
총 잔액	178,774,613

4. 2017년도 사업계획

1) 2017년도 재단 지정 연구과제

(1) 세계 곡물시장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지정과제)

- * 연구기간 : 2017년 1월 - 12월 (1년과제)
- * 연구책임자 : 이철호
- 제1 세부과제 : 세계 곡물수급 현황과 미래 전망 (연구책임자 성명환)
- 제2 세부과제 : 한국의 곡물조달 정책과 현황 (연구책임자 오정규)
- 제3 세부과제 : 세계 곡물시장의 구조와 특징 (연구책임자 김민수)
- * 연구비 : 2,000만원

2) 외부수탁과제

(1) 과학기술원립원 'IAP 식량영양안보와 농업-한국의 전망' 정책자문보고서 집필위원회 2차년도 연구 :

- * 위원장 : 이철호 이사장, 부위원장: 김유항 교수(인하대)
- * 위원 : 박현진 교수(재단 감사), 성명환 박사(농경연), 송기현 처장(농어촌공사), 이효정 박사(KOICA), 이점호 과장(농진청), 정해정 (재단 연구원)
- * 연구기간: 2017년 1월~6월
- * 연구비 : 회의비, 집필자 원고료

4-2.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1) 제 19회 식량안보세미나

- * 제목 : 미국의 GMO 안전관리 현황
- * 일시 : 2017년 4월
- * 주최 : 미국곡물협회,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2) 제 20회 식량안보세미나

- * 제목 : 세계 곡물시장 현황과 대응 방안
- * 일시 : 2017년 10월
-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3) 식량안보간담회

- * 수시 개최

4-3. 출판사업

(1)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 * 저자 : 고재모, 김태곤, 이철호
- * 출판예정일 : 2017년 3월
- * 정가 : 미정

(2) 콩 스토리텔링 (국·영문판)

- * 저자 : 콩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편
- * 출판예정일 : 2017년 3월
- * 정가 : 미정

(3) 식량안보시리즈 제7권 -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할 신육종기술

- * 저자 : 한지학 외
- * 출판예정일 : 2017년 4월
- * 정가 : 미정

(4) 식량안보시리즈 제8권 - 21세기 구원투수 고구마

- * 저자 : 광상수 외
- * 출판예정일 : 2017년 6월
- * 정가 : 미정

5. 2017년도 예산 ■■■

5-1. 재단 운영비

(단위: 원)

항 목	세부내용		금 액	소 계
인건비	사무원		24,000,000	45,000,000
	연구원 및 기타 인건비		21,000,000	
연구사업 지원	세계 곡물시장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20,000,000	20,000,000
저술지원사업	단행본 출판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10,000,000	35,000,000
		콩 스토리텔링 (국영문판)	10,000,000	
		식량안보시리즈 7,8권	10,000,000	
	출판협동조합 관리비		5,000,000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식량안보세미나 2회		14,000,000	19,000,000
	식량안보 간담회 5회		5,000,000	
회의비/사무실 운영비	회의비(총회,이사회,자문위원회,기타)		3,000,000	23,000,000
	사무실 운영비(임대료,관리비,기타)		10,000,000	
	홍보, 광고비(홈페이지 운영, 기타)		5,000,000	
	후생복지비		3,000,000	
	활동비		2,000,000	
합 계			142,000,000	

6. 이사장 칼럼

[월요논단] 식품관련학회의 단합된 힘 - 식품외식경제 2016-02-12

우리나라 식품관련 7개 학회가 20대 국회의원 총선에 식품산업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해줄 것을 주요 정당대표에게 요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 건의문에 참여한 학회는 한국식품과학회(회장 임승택), 한국식품영양과학회(회장 최명숙), 한국산업식품공학회(회장 김병용),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회장 김대정),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회장 조영수), 한국포장학회(회장 이광호), 한국식품기술사협회(회장 백병하)다.

식품산업은 농수산업과 함께 5천 만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식품·외식산업은 150조 원의 매출액에 약 360만 명이 종사하는 거대 산업 군이면서도 이제까지 이 분야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한 번도 내지 못했다.

이에 식품산업의 육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바른 정책 입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각 정당에서 이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의원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이 건의문을 각 정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식품관련학회가 공동으로 국가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식품관련 8개 학회(한국영양학회 포함)가 식품관련학회연합을 결성하고 각 대선 캠프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그 내용은 식품산업이 국가의 중요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의 지원 육성정책이 미비해 산업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대통령 후보 정책공약에 식품산업 지원정책을 약속해달라는 것이었다.

대선 후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으로는 처음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만들었다. 식품산업의 지원 육성을 전담할 부처가 처음 생긴 것이다. 식품관련학회연

합은 그 후 각 학회의 회장들이 돌아가며 연합회장을 맡아 운영했으나 리더십의 부재로 명맥이 끊어진 상태다. 이번 건의문 작성은 식품학계는 물론 식품산업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식품학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식품산업의 발전이다. 대학의 식품관련 학과들은 식품산업에서 일할 인재를 키우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이 산업분야에서 일하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학의 식품학 연구는 우리 음식의 과학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다. 식품관련학회들이 식품산업을 지원하고 그 중요성에 걸맞게 사회적 위상과 대우를 받도록 돕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책무이다. 식품관련학회들이 이와 같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식품산업이 단합해 힘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식품외식산업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모래알같이 흩어진 상태에서 힘을 모아 이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다. 그 결과 제약협회,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유사한 직능단체들은 매년 복수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는데 식품외식산업은 한 번도 이 분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내 본적이 없다.

그로 인해 식품외식산업은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질타와 관리기관의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이 결여된 시민단체들의 부당한 요구에 밀려 고열량 저영양식품 표시, 식품이물 의무보고제 등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규제로 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주장으로 불필요한 규격기준들(예를 들면 김치의 납 기준치)이 만들어지고, 벤조피렌 사건으로 한국식품의 국제신인도가 추락하는 등 수많은 해악을 당하고 있다. 참여정부시절에는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돼 식품학계가

적극 지원하고 나섰으나 약사협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의해 힘이 좌절됐다.

이제 식품외식산업이 힘을 합쳐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할 때이다. 식품관련학회들이 주요 정당에 제출한 건의문이 실현되도록 식품외식산업이 힘을 모아 20대 총선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 내기 바란다.

[이철호 복지칼럼] 복지국가의 조건 - CNB저널 2016-02-11

흔히들 덴마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된 세계 최고의 사회복지 국가라고 말하며 부러워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까지 모두 무료이다.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으면 실업수당을 받는다. 아픈 사람은 병원에서 모두 무료로 치료받는다. 늙어서는 양로원도 무료이다. 도대체 이 나라는 돈이 얼마나 많기에 이 모든 것을 정부에서 대어주고 있는 것일까?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덴마크의 복지를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젊은 시절 덴마크에서 6년 동안 대학원 학위공부를 했다. 그들의 사회보장 제도를 보고 놀랐다. 그러나 얼마 후 아내가 덴마크 병원에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아내가 받는 월급의 56%를 세금으로 떼고 나왔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간호사의 월급이 그 사회에서 별로 높은 수준이 아닌데 어떻게 근로소득세를 월급의 56%나 매길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비교적 높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누진세율이 높아져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덴마크의 복지제도이다. 국민 각자가 받는 것 이상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실업자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위해 국민들이 그 비용을 내고 있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도우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나라이다.

우리는 근로소득세를 월급의 15% 정도 내는 나라이다. 이걸 가지고 도로, 항만 등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초중등학교 의무교육을 하고 국방비까지 지출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에도 버거운 나라

이다. 이런 나라에서 선거에서 이기고 권력을 잡기 위해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무상지원을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는 젊은이들에게 용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나서는 자들도 있다.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책임은 이런 터무니없는 약속에 홀려 표를 찍는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세금을 더 낼 생각은 추호도 없으면서 복지혜택을 더 받으려는 국민이 많으면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돈을 관리해야 할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몰염치와 도덕적 해이이다. 최근 불거진 아리랑TV 사장의 부정행위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매년 거듭되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호화 해외여행,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특혜, 정부 지원금이나 보상금의 부정 수혜 등 정직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부른 복지 확대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 거버넌스가 정착되지 않은 사회에서 인기를 얻기 위한 복지 공약은 독이 된다. 그리스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국민 재교육이 일어나야 한다.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고 약자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이다. 덴마크가 복지국가가 된 것은 국민교육을 통해 정직하고 청렴한 국민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지 않는 봉사직이다. 버스를 타고 다니며 비서도 없고 자전거로 지역구 내 구석구석을 살핀다. 공금을 쓸 때에는 철저하게 영수증 처리를 한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

들이 이렇게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검소하고 바른 생활 모범을 보이니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월급의 반 이상을 기꺼이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에게는 조그마한 부정이나 거짓말도 용납되지 않는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모든 사회 규범의 위에 둔

다. 복지혜택을 늘리기 전에 이러한 사회 규범을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덴마크처럼 되려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기고] GMO의 과학적 진실 - 식품음료신문 2016-07-18

최근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GMO 심포지엄'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다큐멘터리 영화 '유전자롤렛'을 상영했는데, 정말 많이 놀랐다. 일반인들이 이 같은 정보를 접할 시 만사를 제쳐놓고 GMO 반대운동에 나설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GMO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아는 필자로서는 허구성에 진을 느꼈다. 1998년 GMO 안전성 논란에 불을 지폈던 영국 푸스타이 박사의 감자 렉틴독소 사건을 비롯해 러시아 에르마코바 박사의 쥐 사망률 증가 발표, 프랑스 세라리니 교수의 쥐 종양 발생률 증가 주장 등 세계 과학계가 이미 잘못된 연구임을 입증해 폐기된 내용들을 버젓이 보여주고, 농부들과 일반인들의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례를 나열하고 있었다. 심지어 조작된 헛소문으로 판명된 인도 GM면화 사건도 꼼꼼하게 다루고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기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인도 현지에서 파견돼 허구임을 확인한 사항인데도 이 영화는 한국어 자막으로 엉터리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민주사회에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몬산토 등 다국적 기업들과 결탁한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과학자들을 싸잡아 폄하하는 극소수 서양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노벨상 수상자 107명이 GMO 반대운동의 진원지로 알려진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대해 거짓된 캠페인

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미국 과학, 공학, 의학 한림원이 공동으로 미국에서 재배한 GM작물을 지난 20여 년간 아무런 표시 없이 먹어온 결과가 인체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70여 명의 연구자가 900여 편의 논문과 자료들을 검토해 380여 쪽의 방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현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판되고 있는 GM식품은 안전하며 먹어도 아무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주제 강연 전날 주최 측에서 보내온 발표 자료집에서 필자 강연 뒤에 이어 발표하는 일본인 시민운동가의 발표 내용을 보고 다소 긴장됐다. GMO 안전성 검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는 GM작물 개발과정 문제점에 대해 유전자 지도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이종간 유전자 이전의 위험성을 마치 대단한 과학적 지식을 가진 것처럼 적어놓고 있었다.

필자는 강연에서 GM작물의 필요성과 유용성, 한국 GM작물 개발과 안전성 평가 현황 그리고 GMO에 대한 세계 과학계의 의견들을 제시하고 이제까지 잘못된 안전성 논란의 진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일본인 발표자는 일본에서 생명공학 학부를 졸업하고 GMO반대운동을 하는 과학자임을 자처하면서 안전성 평가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그런데 자료에 있었던 유전자 지도나 이종간 유전자 이동 등 과학적인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를 마치고

내려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10여 명의 청중 질문이 모두 필자에게 집중됐으며 그들의 오해와 우려에 대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GMO에 대해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해 깊은 불신과 오해를 가지고 있음에 놀랐고, 여기에는 소통을 게을리 한 우리 과학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GMO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근원지는 그린피스 같은 국제 반GMO조직들이다. 그들은 거짓된 낭

설을 대단히 과학적인 것처럼 포장해 각 지역 운동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세계식량상(World Food Prize) 수상자인 덴마크 출신 핀스트림 앤더슨 박사는 이러한 다국적 단체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처벌하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역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짓된 선전으로 국민에게 GMO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행위를 근절할 방법에 대해 논의할 때이다.

[이철호 복지칼럼] 농지 훼손은 자손만대에 대한 범죄 - CNB저널 2016-10-10

지난달 정부와 새누리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8만5천ha 규모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1만5천ha를 추가 해제할 계획이라고 한다. 불과 1년여 동안에 지난 10년간 해제된 전국 절대농지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이 훼손되고 있다. 농지를 보존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이 이같이 부분별하게 농지 훼손에 앞장서는 모양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6.25사변으로 남한이 낙동강 아래로 밀려 났을 때 적화통일이 안 된 것은 바로 전 해인 1949년에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단행해 농토가 농민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시화, 산업화로 많은 농토가 도로, 주택, 산업단지에 흡수되어 농지 훼손이 심했고, 기업들은 공장이 망해도 공장부지로 돈을 버는 농지전용이 만연했다. 농지가 부자들의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 대상이 된 것이다. 1990년 노태우 정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즉 절대농지를 지정하고 농지 보전 제도를 강화했다. 경자유전(耕者

有田)의 원칙에 따라 절대농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농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1992년에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와 함께 우리 농업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절대농지와 그린벨트는 기업이나 자본가들의 재산증식을 위한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인식되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부 해제 논의가 들먹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2008년 농지법을 개정하여 절대농지의 농업 외 사용규제를 완화하고, 농지 소유 규제를 완화해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은 무너졌고, 이후 2015년까지 임차농가의 비율은 60%에 달했으며, 농민의 반 이상이 다시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임차농지 비율은 전체 농지의 51%로, 1947년 농지개혁 직전의 소작농지 비율 6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도시 거주 비농민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근교 농지 대부분을 투기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절대농지 해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온 국민이 경악할 일이다. 민심의 소재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나라의 정통성과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정당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정

의를 부르짖으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당과 국가의 정통성과 안보는 믿고 맡길 만하지만 부자들 편에 서있는 정당 사이에서 국민들은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 지난번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여당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유이다.

농지정책은 국가의 존립과 백년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지금 쌀이 좀 남아돌고 쌀값이 하락한다고 할부로 손을 댈 일이 아니다. 쌀의 수요 확대와 쌀값 안정은 다른 방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먼저 통일을 대비한 통일미 120만 톤 비축제도를 입

법화해서 식량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가난해서 쌀밥 대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저소득층에게 쌀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남한에서 먼저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통일이 되면 즉시 북한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 준비만으로도 지금 남아도는 쌀로는 턱없이 모자랄 형편인데 절대농지 해제에 열을 올리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일이다.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을 위한 쌀은 대부분 남한의 논에서 생산해야 한다. 말로만 통일을 논하는 정부가 아니기를 바란다.

[이철호 복지칼럼] 음식에 대한 편견과 오만 - CNB저널 2016-11-28

1970년대 초 유럽을 휩쓸었던 히피 운동은 제도권의 속박에서 풀려나기 위한 젊은이들의 자유 운동으로 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단정한 머리와 넥타이 맨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를 벗어버리고 긴 머리에 깎지 않은 수염과 험렁한 옷에 슬리퍼를 신은 젊은이들이 런던과 암스텔담의 거리에 널려 있었다. 이들은 가공음식을 배척하고 익히지 않은 곡물과 말린 과채류를 먹으며 가장 자연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으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영국의 한 젊은이는 당근 주스로 몇 개월 살다가 결국 사망했다. 음식에 대한 페디즘(faddism, 허황된 유행 따르기)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연식(natural food)에 대한 편견은 1960년대의 녹색혁명으로 식량이 풍성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녹색혁명은 난쟁이 작물에 농약과 비료를 충분히 주어 수확량을 2배 이상 올린 현대 농업의 혁신적 성과였다. 이때부터 전 세계의 식량부족은 크게 해소되었고 우리나라는 쌀을 자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농약의

잔류량이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왔다. 각 나라들은 서둘러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 관리하기 시작했다. 1970/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입 자몽의 알라 파동, 수입 밀의 농약 오염, 농약 콩나물 등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당시 일본과 한국에서 조사된 소비자 식품위생 의식에는 잔류농약에 대한 우려가 항상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성장한 것이 유기농식품(organic food)에 대한 선호이다. 유기농법은 유럽의 히피 운동 시대에 크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식량 생산 방식이다. 녹색혁명과 정반대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재배하자는 것이다. 결과는 일반 농법보다 수량이 현저히 낮고 병해충에 상처받은 농산물의 상품성은 대단히 낮다. 그러면서 값은 2, 3배를 호가하니 잘 팔리지 않는다. 더구나 우수관리농산물(GAP) 생산제도가 정착되고 관리당국의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로 우리가 일상 먹는 음식에서 잔류농약의 문제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식품의 설자리가 점점 없

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유기농 업체들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반대 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미국의 3억 인구가 지난 20년간 아무런 표시 없이 먹어 왔고 중국의 13억 인구가 부분적으로 표시하고 먹고 있는 생명공학 신제품을 ‘괴물GMO’라며 겁을 주고 있다. 유기농식품업체들은 GMO표시제를 확대하고 ‘GMO프리(free)’ 표시를 허가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GMO프리 표시가 허가되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 유기농 매장을 GMO프리 유기농식품 매장으로 만들어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속셈이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먹으려고 달려드는 데 뒤에서 누군가가 ‘거기 독이 들어있을지 몰라요’라고

하면 아무도 먹지 못한다. 같은 음식이라도 몸에 좋다고 믿고 맛있게 먹으면 보약이 되지만 불안하고 계름칙하게 생각하면 체하기 마련이다. 식품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과 편견을 유포하는 것은 큰 죄악이다. 더구나 거기 상업적인 의도가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내 자식만은 특별히 키우겠다고 비싼 값을 주고라도 특별한 음식을 찾는 부모들도 오만과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편식과 식품 불안증으로 허약하고 의심 많고 어울리지 않는 선민의식에 빠진 인간을 만들 수 있다. 보통사람들과 어울려 안심하고 먹고 즐기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기본요소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도서출판 식안연 출판현황

2016년 12월 현재

도서명	저자	초판년도	발행부수(권수)	정가(원)	현재재고
음식오케스트라	이철호	2012	1,000	8,000	189
식량전쟁	이철호	2012	2,000(재판)	12,800	218
FOOD WAR 2030		2013	500	20,000	148
식품산업 한식세계화에 날개 달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2012	2,000	25,000	342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이철호, 문헌팔, 김세권 김용택, 박태균, 권익부	2012	1,500(재판)	16,000	82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2015	500	25,000	91
과학이 보인다	양재송	2013	2,100(개정판)	17,000	395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이숙중, 이꽃임	2014	1,800(재판)	15,000	348
나트륨, 건강 그리고 맛	이숙중, 이철호	2014	3,000(재판)	8,000	541
건강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신동화, 김영수, 최재성	2015	1,000	8,000	627
GMO 바로알기	박수철, 김해영, 이철호	2015	8,500(5판)	12,000	122
쌀의 혁명	이철호, 이숙중, 김미령	2015	1,000	10,000	163
광복70년 인생70년	이철호	2015	1,000	12,000	130
식량낭비 줄이기	채희정, 이숙중, 이철호	2016	1,500(재판)	12,000	624
목소리와 견해	Navarro, M.J.	2016	1,500	12,000	220
식물생명공학 101	CropLife International	2016	3,000	비매출	450

[제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



존경하는 의원님 귀하

이 나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고로 '백성(民)은 사람의 입(人口)이요 정치의 기본은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이라 하였으니,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야말로 정부의 일차적인 책무이고 국회가 도와야할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입니다. 식량(곡물)자급률이 24% 이하로 내려앉은 현재 상황은 국가 식량안보의 위기상황이지만 이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각종 식품피담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식품 공포증에 시달리게 합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GMO(유전자변형농산물)운동으로 무책임하고 거짓된 GMO유해론이 전국적으로 유포되어 이 나라의 식량공급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 잘못된 정보에 현혹된 일부 국회의원들이 농업생명공학 연구 노력을 저지하고 현행 GM식품 표시제도를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시도는 앞으로의 농업발전과 식량공급을 어렵게 하는 막중한 실책을 우려하게 합니다. 이에 국내 9개 식품관련학회 및 단체들은 '일부 국회의원들의 GMO 정치이슈화를 우려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국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식은 국가 경제와 국가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육과 홍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께 몇가지 자료를 보내오니 눈여겨보시고 입법 활동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20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철호 올림

[첨부]

1. 식품관련학회 성명서(중앙일보)
2. GMO논쟁 무엇이 문제인가(매일경제)
3. 'GMO 논란' 과학 제쳐두고 매녀사냥인가(조선일보)
4. GMO의 과학적 진실(식품음료신문)
5. 노벨수상자 편지(Supporting Precision Agriculture(GMOs))
6. GMO 바로알기 (도서출판 식안연)

www.foodsecurity.or.kr

KFSRF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대한민국 식량 공공·식품안전성을 지키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로그인

공지사항 바로가기
·GMO 공표심포지엄 개최 안내

연구지원사업
·삼양사 연구재단 연구과제 수형 - 이장...
·2017년도 재단 연구사업 확정...
·2017년도 재단 연구과제 공모
·한국과학기술평가원 IAP 식...

세미나
·18회 식량안보세미나 보도자료
·식량안보 공진을 위한 한국리브 협력...
·제18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
·미국대사관 주최 북한 농업에 관한 세...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 76호
·뉴스레터 제 77호
·뉴스레터 제 78호
·뉴스레터 제 79호

출판사업
·'과학이 보인다' 개정증보판 출판...
·'식량안보시리즈 제6권 - 목소리와 건...
·[신간도서] 식량안보 줄이기 - ONE저널
·식량안보시리즈 제6권 '식량안보 줄이...

논문
·'식량안보를 위한 식품과학기술의 역할...
·Ethnic fermented Foods and Alcoholic...
·Diversity of Microorganisms in Globa...
·Food in a future of 10 billion

뉴스기사
·대한민국, 식량안보에 주목하다...
·대한민국, 식량안보에 주목하다 ④수...
·대한민국, 식량안보에 주목하다 ①은들...
·GAP을 바라보는 농업의 눈 - 농업정보...

동영상
·GMO 올바른...
·대구MBC 시사...
·YTN 뉴스영...

갤러리
·재분업계 신...
·ACT & CI Sy...
·제18회 식량...

상담문의전화
02.929.2751
FAX 02.927.52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109A호 | 02841
Copyright © 2019 FOODSECURITY ALL RIGHT RESERVED.
Email: foodsecurity@foodsecurity.or.kr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109A
TEL: 02-929-2751 FAX: 02-927-5201 E-mail: foodsecurity@foodsecurity.or.kr